

경인양행, Sumitomo 60억원 유치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체결 ... 염료 사업과 함께 전자재료에 투자

염료 생산기업인 경인양행(대표 허정선)이 일본의 Sumitomo상사로부터 6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경인양행은 12월17일 스미토모상사의 기능성화학사업부와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발행주식 250만주의 20%인 50만주의 지분을 스미토모상사가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입되는 자금은 염료 신제품 개발에 투자될 전망이며 특히, IT 전자재료와 유기EL 사업 등 신규사업에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양행은 2003년 매출액 9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한해 10%대의 염료부문 성장과 전자재료의 매출증대로 2006년 2000억원, 2010년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허정선 대표는 “<검증된 성장가도에서 안정된 수익추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스미토모상사와의 증자 및 지분변동을 통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확실한 연계로 목표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료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경인양행은 종업원의 20%를 연구원으로 비치하고 국내외 50여개 특허를 보유하는 등 염료 메이저에 준하는 기술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22>